

교단공과

출판권금

- ① 유치부학생용, 유년부학생용, 초등부학생용, 아동부교사용(유치, 유년, 초등부 합본) : 각 5,000원
- ② 아동부 실크파일포인트 USB : 10,000원
- ③ 성인용 : 8,000원

특징

- ① 아동부 공과교재
- ② 설교와 공과가 연계되어 있음
- ③ 공과는 성경이야기와 활동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 ④ 영어가 삽입되어 있음

공과신청

- ① Fax: 02)2677-5181, 031)441-1793
 - ② e-mail: aogk@aogk.org
 - ③ 입금계좌: 농협 365-0053-3758-93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문의

전 화: 02)2675-5181~3, 031)447-2922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22년도 목사고시 공고

2022년도 목사고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서 류 접 수 : ① 일시: 2021. 8. 31(화) 17: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② 장소: 총회본부(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③ 방법: 등기우편
- * 목사고시청원서 작성 및 제출 안내: 총회홈페이지(www.aogk.org)→ 자료실→ 서식다운로드→ 교단서식→ 제15호 목사고시청원서(구비서류첨부)→ 2부 작성→ 지방회에 제출→ 지방회임원회 심의→ 1부 지방회 보관, 1부 총회본부에 제출.
- * 총회목회대학원 2학년 재학생은 우선 재학증명서'를 제출하고, 12월 졸업과 동시에 '졸업증명서'를 제출한다.
2. 서 류 실 사 : ① 일시: 2021. 9. 09(목) 오전11시 ② 장소: 총회본부 회의실
3. 오리엔테이션: ① 일시: 2021. 9. 30(목) 오전10시 ② 장소: 총회본부
4. 목사 고시료 : ① 납부일: 2021. 8. 31(화)까지 ② 금액: 50만원
③ 입금계좌: 국민 061701-04-17686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5. 목사고시 : ① 일시: 2022. 2. 7(월)~8(화) 오전10시 ② 장소: 총회목회대학원 강의실
6. 전도사 경력 계산은 만으로 하되, 계산일은 4월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7. 직장과 목사직은 겸할 수 없으므로 직장을 가진 자는 목사고시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8. 목사고시 응시 자격은 헌법 제37조 및 헌법시행규칙 제13조를 준용한다.
9. 서류심사 이후에는 목사고시 서류일체와 고시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 회 장 목사 신재영 고시 위원 장 목사 이석호
총 무 목사 이경진 고시위원회서기 목사 김명준

홈페이지 www.lovehousecare.com ·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 홈페이지 www.lovepn.com



노인 장기요양시설 경기도 이천 사랑의집

사랑과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사랑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 박흥열 목사입니다. 사랑의 집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매우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희 사랑의 집은 치매, 중풍, 당뇨, 관절염, 파킨슨병, 노인성질환 및 독거노인, 장·단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정성스럽게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 사랑의 집은 전원지역 농촌에 있는 요양시설입니다. 자연친화적인 환경에서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내집같은 곳입니다. 깨끗한 시설과 쾌적한 주위 환경...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으며, 풍부한 경력의 요양보호사들이 24시간 상주하여 어르신들을 가족처럼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서민들의 경제를 생각하여 저렴한 요양비로 모시고 있으며, 저희를 믿고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랑의 집에서 가족처럼 정성을 다해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의 집 원장 박흥열 목사



어르신들을 내 가족처럼 내 부모처럼 모시겠습니다

사랑의집 연혁

- 2009. 07. 10 사랑의집 개원 (9인 시설 공동생활가정)
- 2011. 07. 27 사랑의집 신축건물 준공
- 2011. 11. 23 사랑의집 (15인) 시설 인가
- 2014. 02. 10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 (봉사단체 설립)
- 2019. 09. 23 사랑의집 (20인) 시설 인가
- 2020. 05. 11 사랑의집 (29인) 시설 인가

사랑의집 시설장

- (박흥열 목사 수상경력)
- 2007. 10. 3 이천시의회의원 표창
- 2014. 12. 13 이천시장 표창
- 2016. 02. 18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2019. 09. 28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표창
- 2020. 12. 18 이천시장 표창



요양보호사 모집

사랑의집 연락처 : 031-643-4041
주소 : 경기도 이천시 읍면 금융로 82번길 198-50

010-2217-4489 010-8732-4489

오성사랑교회(담임 박흥열 목사)

구약성경을 최초로 한글로 번역한 알렉산더 피터스 목사

구약성경 최초의 한글번역자 피터스목사기념사업회 회장 박준서 교수와

성경은 히브리어(구약)와 헬라어(신약)로 기록되었다. 배우기 어려운 언어임에도 한국 사람들이 성경을 한글로 읽을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주시신 큰 은사이다. 감사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한글로 번역된 성경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 보내 주신 것이 아니다. 성경을 한글로 번역할 일꾼들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게 한 것이다.

신약성경의 경우 신약의 기초를 번역한 분이 존 로스(John Ross) 목사라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구약성경을 최초로 번역해 주신 분은 누구인가? 의외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대부분 목사들도 모르고 있다. 그 분이 바로 알렉산더 피터스 목사이다.

알렉산더 피터스 목사는 우리 민족이 한글로 구약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해주신 분이다. 한국교회에서 한글 성경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또한 한글 성경은 한글의 대중화, 자유와 평등사상의 확산, 민족 정신의 고취 등 국민 계몽과 근대화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와 문화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이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 면에서 구약성경을 한글로 번역해주신 피터스 목사는 한국교회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전체에 큰 공로자라 할 수 있다.

알렉산더 피터스는 미국 성서 공회(가톨릭)가 권서(Colporteur) 자격으로 한국에 파송한 선교사로 1898년 번역한 시편의 일부인 '시편 찬양' 발간과 구약성경

"한국교회에서 한글 성경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또한 한글 성경은 한글의 대중화, 자유와 평등사상의 확산, 민족 독립 정신의 고취 등 국민 계몽과 근대화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와 문화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한국교회에 한글로 된 구약성경을 선물한 은인 피터스 목사 기념사업을 제안합니다."

을 최초로 한국어로 번역한 역사적 인물로 그의 업적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알렉산더 피터스 목사(1871-1958)는 구약성경을 한글로 번역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해준 가장 큰 공로자입니다. 알렉산더 피터스 목사(한국명 피터)는 1898년 한국에 와서 3년 간 한국말을 배운 후 1898년 시편의 일부를 우리말로 번역해서 '시편 찬양(시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선택해 정리)'을 출간했는데 이것이 역사상 최초의 한글 구약성경 번역 일이다. 이 '시편 찬양'은 최초의 한글 구약성경이라는 것 외에 몇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직접 번역했으며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순 한글로 번역했습니다. 피터스씨가 보편화되기 전 '시편 찬양'은 피터스씨가 했으며 그가 한국에 온 지 불과

2년 만에 아무 도움도 없이 혼자 힘으로 구약 책 중에 번역하기 가장 어려운 시편을 유려한 한국어로 번역했습니다."

피터스 목사 기념사업회 회장 박준서 교수(연세대 전 부총장)의 말이다.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해준 분들은 우리들이 영원히 감사해야 할 민족의 은인입니다. 신약성경의 경우 스코틀랜드의 선교사 로스 목사가 1884년 중국 상하이에서 최초의 신약성경을 번역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한 국교회에는 그의 공적을 기념 '로스 기념관'을 건립해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구약성경의 경우 무슨 어떤가? 누가 언제 구약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했는지에 관해 알고 있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다. 그의 업적을 감사하는 기념사업은 고사하고 말이다.

"피터스는 1871년 러시아의 정교파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히브리어를 배워 히브리어로 된 기도문과 시편을 능통하며 성경학자였다. 그가 지냈던 19세기 말, 제정 러시아(오늘날 우크라이나는 정교회, 영적으로 미개라 보지 않는 일반인 상층에 처해 있었다. 그런 나라의 유대인들에 대한 차별과 배려가 극심해 유대인들은 이중으로 시달려야 했었다. 그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러시아를 떠나기로 하고 23세 청년 때 러시아를 떠나 일본 나가사키에서 다른 나라로 가려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곳에서 기독교로 개종해 그에게 새 삶을 준 미국 선교사의 이름을 따 피터스라고 개명하고 새로운 삶의 길을 걷게 된다."

박준서 교수는 이렇게 피터스 목사에게 대해 간략하게 소개했다.



박준서 교수

한편, 피터스가 1898년 한국에 오기 전까지 이 땅에는 한국어로 번역된 구약성경이 없었다. 당시 한국에는 구약성경을 번역할 인물이 적당하게 필요했고 히브리어는 물론 라틴어, 헬라어, 독일어, 영어, 아미어(Hebrew, 독일어와 히브리어의 합성어)까지 구사하는 아들의 개종인 피터스는 그 일을 감당하는데 최적인 인물이었다. 피터스는 한국에 온지 3년 만에 구약성경 중에서 번역하기 가장 어려운 책으로 알려진 시편을 번역했다. 우리가 교회에서 즐겨부르는 찬송가 '주여 우리를 도와'와 '눈을 떠서 보라'의 가사 그 시편 121편과 123편을 번역한 것이다. 피터스 목사는 이를 포함 열일곱 편의 시편 찬송을 지었다. 그는 당시 구약성경 구약성경번역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뛰어난 히브리어 실력을 발휘해서 구약성경 번역에 중추적 역할을 했고 1910년 마침내 최초의 한글 구약성경번역을 완료했다. 뿐만 아니라 구약성경 개역위원회와 평생위원회로 위촉되어 한글성경 개역작업에 주도적 역할을 감당했다. 피터스 목사의 업적은 성경번역뿐만 아니라 한민족의 주권과 민족을 위한 분열(분열)을 반대하고 민족을 위한 4개의 주권을 건설하도록 후원금 지원과 1912년 단어 1,700여어나 되는 방대한 한영사전 편찬(제1권)에 이르는 한영사전(7권)의 단어 추가도 있다.

한국에서 여러 가지 사역 중 1941년 피터스 목사는 70세가 되어 은퇴할 나이가 되었다. 그는 성경번역자로 목숨을 전하는 선교사로 49년 동안 분열(분열)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갔다. 그는 캘리포니아주 LA교 패시너(Pasadena) 시에 있는 은퇴선교사주거시설에서

여생을 보내며 1958년 87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한국과 미국에서 피터스 목사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종재인 피터스 목사의 존재를 다시금 알게 하는 구약학의 권위자인 박준서 교수이다. 지난 2016년 패시너 소재 불리언대학에서 연구 교수로 있었던 박준서 교수는 피터스 목사가 패시너에서 살았을 때 그의 묘소도 탐방했다. 그곳 근처에 있는 것임에도 생각해 주면의 여러 사람에게 묘소와 위치를 물어보았으나 아무도 그의 묘소가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다. 결국 묘소관리소의 컴퓨터 조사를 통해 피터스 목사의 묘소가 바로 이 외진 묘역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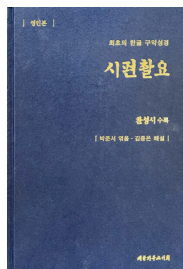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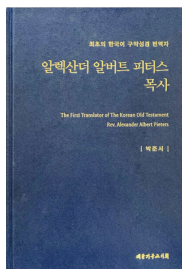
히브리인 박준서 교수에게 피터스 이름을 새겨놓은 석판위로 전과와 장모가 뒤덮여 있어 쉽게 묘소를 찾을 수 없어 일일이 손으로 잡초를 헤쳐 가며 찾던 중 마침내 1978년의 이름이 새겨진 석판을 찾아냈다. 그 순간 박준서 교수는 묘소를 찾았다는 감격보다는 '야 이럴 수가'라는 탄성이 저절로 터져 나왔다. 한다. 우리에 게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해준 '은인'의 묘가 아무런 표지판 하나 없이 이렇게 조용하게 방치돼 있구나! 박준서 교수는 그때 감사를 올리기는커녕 부끄러운 자괴감으로 오랫동안 머리를 들지 못했다고 한다.

"우리말로 성경을 번역해준 피터스 목사를 이렇게 소홀히 대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한민족의 은인 피터스 목사 기념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를 추모하고 그의 공적에 감사를 표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몇 가지 기념사업을 제안합니다. 첫째, 피터스 목사의 업적을 기록한 기념비를 양양산 선교사 묘역에 세울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는 피터스 목사의 기념비를 축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 유족들을 통해 대금에 이르는 유물품 된 설교원고를 받았 습니다. 모두 화가자료들이지요. 이것이 한민족에게 아예 할 수 없는 최소한의 감사 표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라며 박 교수는 마무리했다.

박준서 교수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했다.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피터스 목사 기념사업에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구약성경 최초의 한글번역자 피터스목사기념사업회 회장 박준서 교수 010-9085-7650, parkjs@yonselackr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 산하 지방신학교 2022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예하성부산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학장 한 명 점 목사)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부산시 부산진구 새싹로35번길 14
- T E L : 051803-3927
- F A X : 051831-0198
- e-mail : yhsbs3927@hanmail.net

예하성광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학장 최 정 식 목사)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372-25
- T E L : 062)953-7004
- F A X : 062)953-5004
- e-mail : sm1004@daum.net

예하성충남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학장 오 일 선 목사)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11길 14 한길프라자 B동 301호
- T E L : 041567-3004
- F A X : 041575-3171
- e-mail : changelman@hanmail.net

예하성청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학장 김 상 응 목사)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학과장 장학금, 이사장 장학금, 묵화사역자, 사모, 자녀 장학금
- 주 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68
- T E L : 043)274-2265, 273-2211
- F A X : 043)237-2705
- e-mail : ho-gi@hanmail.net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http://www.aogk.org / e-mail: aogk@aogk.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본부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나길 8
TEL: 02)2675-5181~3 FAX: 02)2677-5181

초대시

전해수 // 은혜와 진리교회 편사

포만감

흔미해 하는 세상 영에 사로잡힌 인생길
소망 없이 방황하며 진리를 모르던 시절...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던 그 '허기'
만족 뒤에도 찾아드는 그 공허감...

청년의 때에 나를 불러 창조주를 기억케 하시고
그 허기를 채워주시니 흥인인 하나님
영혼에 하나 가득 채우신 하나님 사랑
육체에 신비 가득 채우신 하나님 사랑

어디로 사라졌나... 그 공허함의 실체는...
느껴지지 않는 부족함은 어디로 간 걸까?
내 영 속에서...
내 혼 속에서...
내 세로 속에서...

주님으로 가득 찬 심령안의 포만감
산제사 걸음 걸음 그 길을 간다
주님으로 가득 찬 감사 흥만 안고서
주께서 열어놓은 그 길을 간다.



《출 22:2》 출애굽전과 출애굽후의 나...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후의 나...
가련함과 기쁨이 예수로 말미암았나
나의 삶도 예수님이 오심으로 확실한
경계를 곳새 새사람으로 살아난다.

CTS '하인RTA', 어린이 영어 예배 특별 편성

코로나 시대 쉽고 재밌게 영어와 성경을 배울 기회

CTS 기독교TV(회장 김경철, 이하 CTS)는 11월 6일부터 '하인 RTA'를 특별 편성해 가정에서도 TV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영어와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어린이 영어예배 방송을 제공한다. 특별히 이번 방송에서 전 집회를 나눴던지스 멤버 류세라가 아트 활동에 고정 출연해 눈길을 끌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연구 개발한 선교성 교구 CTS 다듬세대 콘텐츠(소장: 한국 외대 사범대 대학원 원 외리교수와 박경민 목사)과 C.W. 대위, 치유하는 교회 부흥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한 쉽고 재미있는 영어 성경 교재는 없을까, 왜 이렇게 하나같이 어렵고 재미가 없을까?"와 같은 고민 끝에 2017년부터 어린이를 위한 영어 성경 교재를 연구 개발하기 시작했다.

'하인 RTA'는 해마다 신약(신 6:4-9)의 가르침을 따라 다음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하느님 아버지 영적 프로그램이다. 영어로 성경을 소리 내



어리고 암송하고(Read the Bible) 암송한 말씀을 함께 토론하고(Talk about the Bible) 배운 말씀을 삶으로 적용시키(Apply the Bible)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글로벌 리더들을 세워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인 RTA'는 어린이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교재와 함께 다양한 바이블 스토리 영상, 재미있는 찬양 음원과 활동, 흥미로운 게임과 아트 활동들을 제공함으로써 다음세대 영어 신학교육에 서로 배움을 일으키고 있다. 이미 여러 교회와 신교

지에서 '하인 RTA'에 대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슬람 선교사는 "올 초부터 시작한 'RTA'의 재밌는 노래와 활동으로 성경을 배우면서 영어 성경 암송을 어려워했던 우리·유년부 40여 명의 학생들이 성경 암송을 재미가 배우고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19로 국가에 봉쇄령이 내려져 예배가 10개월가량 멈춰져 있었는데 RTA'로 인해 예배가 회복되었고 더 많은 신교徒에 'RTA'가 보급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CTS는 "장기화되는 코로나 사태로 한국교회의 다음세대 선교와 전수(傳承)가 중단되거나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미디어 선교기관으로서 다음세대의 예배회복과 부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하인 RTA'를 전국 계약 방송하여 급변하는 시대에 다음세대의 부흥을 위한 신학교육 플랫폼으로 구축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사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구해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국가다. 민주주의는 소중한 제도이지만 답당자들의 양식이 정제되어야 하는 제도다. 허물러와 나치스가 민주주의가 없어서 등장한 것이 아니다. 허물러는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민주적 과정을 밟아 집권을 했다. 집 내는 부패의 손에 들어간 면 없지나 나라를 진흥시키기 때문에 파국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는 게 민주주의다.

국가의 제도와 권력은 정당성(legitimacy)과 안정성 두 가지 모두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국가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주권재민이라고 하려야 참에 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숙해 가는 것이다.

모든 국가는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 민주주의에서 국민들은 그들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는다. 프랑스의 보수주의 정치사상가 조제프 드 메스트르가 1811년에 한 말이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불확실한 정부를 국민들은 겪고 있는데 만일 이제껏 정부가 된다면 그보다 더한 형태의 정치적 정체를 보게 될지도 모른다. 합당한 나라, 공평의 나라.

이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폴리스(polis) 동물이다"라고 했다. 폴리스는 도시를 뜻하는 말인데, 폴리스 동물이란 정치적 동물이라는 함의를 가지고 있다. 폴리스는 그의 저서 '국가'에서 이상 국가를 말했다. 지만 이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정치학'에서 실현 가능한 '최선 국가'에 대해서 말했다. 실현 가능한 최선 국가를 이루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바로 법치를 강조한 것이다. 법치란 통치자로 법에 복종해야 법의 지배될 수가 있는 것이다. 지도자의 권력원생각이 국민을 위한 기쁘고 쾌락으로 최고의 자유를 무시하고 교회를 탄압하고 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성경은 감사를 말씀하고 있다.

비율과 실리가 법치에서 복음을 전파한다. 로마의 지배 감옥에 갇혀 손발이 묶였지만 하나님을 찬미하기 시작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세상에서 핍박받을 수 있는 신분이 된 것 자체를 감사했다. 박해는 일상적인 일이고 그 일상을 감사할 것이다. 또 감옥에 갇힌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줄 믿고 감사했다.

진정하게 자기가 일어났고, 최고가 되고 욕망을 얻었다. 로마에서 두루린 때는 간수에게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유하고 그 권유에 구원을 얻으라는 단 순한 복음을 선포했다. 간수장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성경의 약속에 감동되어 얻었고 그 선전된 말씀대로 간수장과 그의 집으로 구원의 빛이 비추어 교회로 세우는 여사가 일어났다. 령 16) 특히 우에게 주어진 성경을 감동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구해야

'위드코로나' 시대, 예배 회복 위해 하나돼야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한국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나?

첫째는 지난 20개월 동안 정부의 '정착방역' 때문에 무너진 예배 회복을 위해 하나로 합쳐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를 발발기 기독교에 대해서는 타종교와 차별을 했었고, 다른 다종교의 이들과 노동단체의 대규모 행사에 대해서는 완용을 배웠는데도 기독교에 대해서는 무관심의 태도를 보였다. 이것으로 인하여 교회에서의 예배는 심각한 정도로 침체를 당했다. 이에 대하여 교계 연합단체, 각 교단, 각 교회들은 예배 회복을 위해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일관적인 예배 제한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함께 내야 한다.

둘째, 코로나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 대한 로드맵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는 코로나와 같은 상황은 또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이번에 위드코로나 시행으로 인한 변화도 예견해야 한다. 따라서 기독교계가 있을 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으면서, 종래의 변화가 있을 때 이를 기점으로 내세워 일관성 있게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예배에 대한 신학적 이해(神學)도 공유해야 한다.

셋째, 개인의 건강과 사회적 건강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교회는 코로나 확산 초창기를 빼고도 신도적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켰다. 앞으로도 이런 모범은 필요하며,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과감히 양보하는 열의가 필요하다. 우리는 위대한 시대, 위대한 도전 앞에 서 있다. 다만 코로나뿐만 아니라, 그 코로나를 발발기 교회를 움직여 오는 수많은 도전을 보았기 때문이다. 위드코로나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한국교회는 코로나 이전에 원형대로 되돌아오고, 코로나로 인한 발발기 교회를 움직여 오는 수많은 도전을 보았기 때문이다.

둘째, 코로나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 대한 로드맵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는 코로나와 같은 상황은 또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이번에 위드코로나 시행으로 인한 변화도 예견해야 한다. 따라서 기독교계가 있을 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으면서, 종래의 변화가 있을 때 이를 기점으로 내세워 일관성 있게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예배에 대한 신학적 이해(神學)도 공유해야 한다.

셋째, 개인의 건강과 사회적 건강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교회는 코로나 확산 초창기를 빼고도 신도적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켰다. 앞으로도 이런 모범은 필요하며,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과감히 양보하는 열의가 필요하다. 우리는 위대한 시대, 위대한 도전 앞에 서 있다. 다만 코로나뿐만 아니라, 그 코로나를 발발기 교회를 움직여 오는 수많은 도전을 보았기 때문이다. 위드코로나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한국교회는 코로나 이전에 원형대로 되돌아오고, 코로나로 인한 발발기 교회를 움직여 오는 수많은 도전을 보았기 때문이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 편집 집 고 문 : 정책위원장 조종목 목사

● 발행 집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 인쇄인 : 배정현

● 연락 처 : 편집국 ☎ (02)2677-9935 ~ 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 ☎ (02)2675-5183 FAX ☎ (0504)27-0897

웹사이트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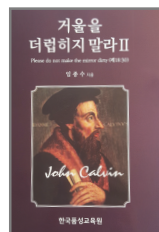
●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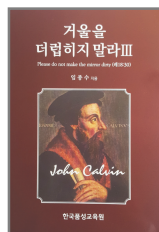
믿음은 구원으로 인도하고 품성은 행복과 성공으로 인도한다



제1권 품성과 비슷한 덕목인 성직, 덕성, 인격, 개성을 바울은 어떻게 개발하였는가? 이조 500년 유교와 고려 500년 불교가 만들어낸 윤리 도덕이 무엇인가? 기독교의 윤리부문 7가지와 자기 개발의 부문에 필요한 10가지를 논하였다.



제2권 대인관계 부문 10가지와 신사적인 성도가 되기 위한 품성 4가지와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품성과 더 좋은 것과 가장 좋은 품성이 무엇인가를 논하였다.



제3권 부정적인 품성 6가지와 영적전쟁의 품성 10가지와 신자가 불리해야 할 세력을 즉 점과 곳, 자살, 인종차별과 이단척결을 논하였고, 올바른 생활을 위한 실천분야 5가지를 논하였다. 만약 이 책을 매일 한 과씩 훈련한다면 훌륭한 신자가 될 것이다. 곧 새 언약과 품성과 자유의 대 현장 두 권이 출판 될 것이다.

품성은 성공과 행복의 열쇠이다. 품성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올바른 일을 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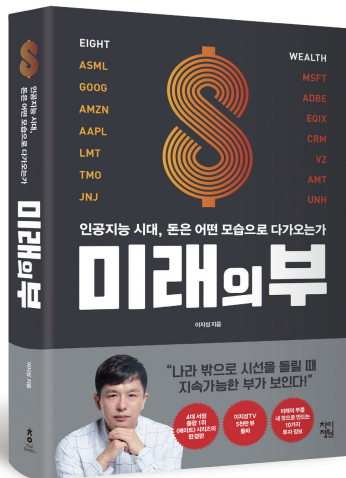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는 영적인 면만 강조하였고 육체를 가진 인간의 삶에 대해서는 등한시하여 삶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야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남의 발에 고추를 밟아 가는 생활이 그 대표적인 이야기이다. 그래서 저자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영적훈련을 해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품성에 어울린 책자를 7권 출판하였다. 최근에 출판된 '거울을 더럽히지 말라' 1, 2, 3권을 소개한다.

강의 안내

각 교회에서 시행되는 각종 중직자 세미나
각 지역에 거주하는 목회자들의 소 그룹

책 구입처

csim4305@gmail.com 임종수 원장
재무담당 이미란 이사 010-8618-9982
계좌번호 농협 351-0771-1742-13
한국 불성교회원



이지성 저 | 값 17,000원

이지성이 전하는 미래 경제에 관한 놀라운 통찰

미래의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

석유는 데이터로, 부동산은 데이터센터로
모든 것의 정의가 새롭게 바뀌는 시대가 왔다!

“새로운 부로 올라타는 데
가장 좋은 순간은 바로 지금이다.”



문의전화 02-334-7932 차이정원

홈페이지: www.ucts.org

2022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신입입생 모집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 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확정을 취득함으로써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 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 3.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 원서교부 및 접수: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02)2678-5181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수시
- ③ 전형료: 20,000원
계좌번호: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e-mail: ucts5181@naver.com

홈페이지: www.ucts.org

2022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서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수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전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전차 한교과 세계의 교회에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 원훈

- 말씀충만, 성령충만.
- 목양인생.
-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전파.

1. 모집학과 및 지원 자격

학과	과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 (M.M/Master of Ministry)	3학차	● 본 교단 소속의 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 신학교 졸업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응시 허락을 받은 자

2. 전형 방법

서류 전형 및 면접

3. 전형일정

- ① 원서 교부: 수시
- ② 원서교부처: 본 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
- ③ 원서 접수: 수시
- ④ 합격자 발표 및 합격자 등록 기간: 개별통보

4. 전형료

- ① 전형료: 30,000원
- ② 계좌번호: 국민은행 061737-04-00535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5.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추천서(소정양식) 1부
- 반명함판 사진 1매
-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기독교관계증명서(종교인사실관계) 1부
-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6. 특전 및 기타사항

-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 인정) 학위를 수여하여 교단 목사(교사)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홈페이지에 업로드 됨.
-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대학원 홈페이지 www.ucts.org 에서 출력 작성 후 E-Mail, 혹은 우편으로 접수 가능.

7. 문의처 및 주소

- 문의처: 02)2678-5181 FAX: 02-2632-0691
-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양평동5가 90-3) 사이버목회대학원 교학처 (우)07205
- 홈페이지: www.ucts.org, e-mail: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02)2678-5181